



우크라이나 옥수수 재배면적 유지 전망, 비료 가격 충격은 2027년 영향 가능성 (Ukraine sees corn area stable, fertiliser shock may hit 2027)

우크라이나는 비료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올해 작부 계획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, 옥수수 재배면적도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. 다만 비료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, 비료 투입 비중이 높은 옥수수 재배가 2027년부터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. 이란 전쟁으로 가스 및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, 이를 원료로 하는 비료 가격도 함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브라질, 에탄올 생산 전환으로 설탕 수출 14% 감소 전망

(Brazil to cut sugar exports by 14% as mills shift to ethanol, consultancy says)

세계 최대의 설탕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브라질이 4월에 시작되는 2026/27 시즌에 설탕 수출량을 14.2%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컨설팅 업체 Safras & Mercado가 목요일 밝혔다. 이는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제당업체들이 사탕수수를 설탕 대신 에탄올 생산에 더 많이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. Safras는 중남부 및 북부·북동부 지역을 포함한 브라질의 신규 시즌 설탕 수출량을 2,900만 톤으로 전망하였으며, 이는 2025/26 시즌 3,380만 톤 대비 감소한 수준이다.

EU, 2026/27 연질밀 생산 감소·수출 증가 전망

(EU forecasts smaller soft wheat crop, higher exports in 2026/27)

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6/27 시즌 일반 밀(연질밀)의 가용 생산량이 1억 2,590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. 이는 이번 시즌 생산량인 1억 3,420만 톤 대비 감소한 수준이다. 연질밀은 EU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곡물이며, 다른 작황 전망 기관들도 지난 여름 높은 수확량 이후 다음 시즌에는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알제리, 국제 입찰 통해 제분용 밀 약 69만 톤 구매

(Algeria buys about 690,000 tons milling wheat in tender, traders say)

알제리 국영 곡물청은 목요일 마감된 국제 입찰을 통해 제분용 밀 약 69만 톤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. 트레이더들에 따르면, 이번 물량은 운임을 포함한 조건(운임 포함)으로 톤당 약 272달러 수준에서 계약된 것으로 알려졌다.

출처: Thomson Reuters